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복지에 대한 복음적 관점: 행하는 신앙



형제 자매 여러분,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복지와 관련된 신권 원리에 대해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저 멀리서부터 조금씩 다가오던 세계 경제의 먹구름이 이제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닥친 이러한 경제적인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복지에 관한 복음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신권에 기초한 복지 원리들은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 원리들은 영원한 것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그 원리들은,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 원리를 실천할 때, 우리는 경전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27)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그분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찾아내어 “환난 중에 돌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야고보서 1:27)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지에 대한 복음적 관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인도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복음의 복지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이 필멸의 세상에서 구주의 가르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의 원리들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영적이면서 현세적인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 검약하는 생활과 자립

첫 번째 요소는 검약하는 생활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삶의 기쁨이 있을 때를 대비하며 뜻하지 않은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약하는 생활이란 세속적인 것들을 탐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풍족한 때라 하더라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약하는 생활이란 과도한 부채를 피하고,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탐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욕을 참지 못하는 그들은 능력 밖의 물품들을 구매하느라 빚을 집니다. 그 결과는 항상 현세적이고 영적인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채를 지게 될 때, 우리는 소중하고 값진 우리의 선택의지를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 만들어낸 속박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도 있었을 우리의 힘과 시간과 재산을 빚진 것을 갚는 데 소진하게 됩니다.

부채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한편, 점점 커지는 절망감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으로 낙담하게 하며, 영적으로도 큰 짐을 지게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배우자와 자녀, 친구와 이웃,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과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진 빚을 갚고 앞으로 빛을 지지 않으려면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단지 행위에서 좀 더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돼.”라는 말을 하는 데에는 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뒤로 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리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미래의 필요사항을 위해 적은 돈이지만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발전시킬 때, 우리는 좀더 자립하게 됩니다. 자립이란 자신의 영적 및 현세적인 복지를 책임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직 자립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에서 구주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자립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주와 같이 되는 것이며, 그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사심 없이 봉사하려 할 때 촉진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자립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메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음식은 빈 선반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텅 빈 선반에서 굶주린 자에게 줄 식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는 아무런 도움이나 이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고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약해서는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4년 11월호, 6쪽)

## 십일조와 헌금을 바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는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십일조의 근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교리와 성약 119:4) 바치라는 계명을 지키므로써, 우리는 더 나아지게 되며 우리의 신앙은 커지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우리는 또한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조절하고 이웃과의 거래에서 정직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지면서, 금식 헌금을 바치라는 계명을 지키려는 우리의 소망도 커질 것입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 먹지 않는 최소한 두 끼 분의 금액입니다. 금식 헌금은 영적 및 현세적인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가 “의명의 회사”로 참여하도록 마련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현세적인 영예나 혜택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이 베프으로써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값 없이 주신 구주의 본보기를 따르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이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님이니라.”(교리와 성약 52:40)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인이 길에서 알지 못하는 그의 형제를 용감하게 구해낸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누가복음 10:25~37 참조)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온 인류에게 축복을 전하기를 갈망합니다.”(History of the Church, 4:227)

## 미래를 준비함

후기의 선지자들이 권고한 바와 같이,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복지 요소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 예산을 세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입에서 지출 및 저축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가족 및 개인 예산을 책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깨닫고 조절하도록 도와 줍니다. 가족 평의회에서 그 예산을 검토함으로써 자녀들은 현명한 지출 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며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저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 교육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또한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고 직장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현재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직장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그 샅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꾼]”이 되십시오.

(누가복음 10:7; 또한 교리와 성약 31:5; 70:12; 84:79; 106:3 참조)

회사가 거듭 규모를 축소하거나 문을 닫더라도, 이상적인 근로자는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발전하고 강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주님의 소망과 능력을 믿는 신앙을 키우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구하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거주지를 바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기꺼이 특별 훈련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건강을 유지하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기도으로써 감사를 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122:7)

### 영적인 준비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복지의 요소들을 적용할 때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칠 때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계명을 지키고 복지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이 마지막 날의 폭풍을 견디어 내고 주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평안을 끼치도록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때를 위해 현세적인 자원들을 비축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성신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시험의 때나 주님이 곁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련의 시기를 대비하도록 해줍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시련의 때와 도전의 시기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신앙을 쌓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우리를 “선하게” 지킬 때 우리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온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인도주의 봉사를 행하는 방법의

예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교회 회원들은 식수원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는 일을 위해 기부합니다. 벽촌의 우물이 가져오는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순전히 현세적인 축복으로 간주하지만, 이전에 물을 길기 위해 수시간을 걷고 또 집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수시간을 더 걸었던 한 어머니에게 오는 영적인 축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녀의 인생의 도전들을 견디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었을까요?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그녀의 가족의 현세적인 목마름을 가시게 하도록 도왔으며, 또한 그들이 생명수를 값 없이 마시고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복지 원리대로 충실하게 생활함으로써, 그들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한복음 4:14)을 가져오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지에 관한 신권 원리들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지닌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지상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즉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그분의 충만한 기쁨을 맛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기회입니다.

저는 구주가 살아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